현자는 칭찬과 비난에 안 흔들려



新 불교사자성어

⑪ 팔풍부동(八風不動)

삶에는 사람의 마음을 현혹하게 하는 8가지 바람이 있다. 칭찬(稱)과 비난(譏), 기쁨(樂)과 근심(苦), 이익(利)과 손실(衰), 명예(譽), 헐뜯음(毁)이다. 팔풍부동(八風不動)은 이 여덟 가지에 흔들리지 않고 평상심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손오공이 삼장법사의 손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듯, 우리의 인생도 하루하루 팔풍 속에 있다. 날마다 사업, 출세, 돈, 명예, 근심, 걱정, 번민, 증오 등 팔풍에 시달리고 있다.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다면 희로애락의 팔풍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팔풍이 곧 인생이고 인생이 곧 팔풍인 셈이다.

팔풍이 심한 날에는 꿈속에서도 계속된다. 악당에게 쫓기는 꿈이나 무서운 꿈을 꾸면서 발버둥치거나 소리를 지르기도 한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꿈속의 일들은 좋은 못한 일들이 더 많다. 어쩌다 좋은 꿈을 꾸어도, 그 순간은 매우 짧다. 꿈은 의식의 반영, 현실의 반영이라고 한다.

역사적 사실은 아니지만, 〈열자(列子)〉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하루는 공자의 제자 안회가 스승 공자에게 물었다. "선생님, 이젠 쉬고 싶습니다. 언제쯤 쉴 수 있겠습니까?" 공자가 말했다. "저 북망산(무덤)을 바라 보거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죽어야 쉴 수 있다'는 뜻이다. 인간은 살아 있는 한 팔풍과 이별할 수가 없다. 관건은 칭찬(稱), 비난(譏), 기쁨(樂), 근심(苦), 이익(利), 손실(衰), 명예(譽), 헐뜯음(毁) 등 팔풍에 동요하지 않는 것, 초탈, 초연해 지는 것밖에 없다. 팔풍이 불어와도 과민 반응을 하지 않고 무던해지면 된다.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팔풍을 극복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법구경(81)〉에는 다음과 같은 명구가 있다.

"견고한 바위가 폭풍에 흔들리지 않듯, 현명한 사람은 칭찬이나 비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매우 좋은 구절이다. 우리는 누군가의 칭찬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속된 말로 목에 힘을 주고 오만을 떨며 우쭐댄다. 이것은 자신이 소인이라는 것을 노출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을 비판, 비난하면 쉽게 열을 낸다. 이렇게 남의 말에 우쭐해 하거나 열을 내면 이미 팔풍에 걸려든 것이다.

또 기쁜 일이나 즐거운 일이 있으면 들뜨고 방만해 진다. 반대로 근심, 걱정거리가 생기면 우울해지고 수심에 잠긴다. 이익과 손실, 명예와 비방에 마음은 극락과 지옥, 열탕과 냉탕을 반복한다. 이렇게 살다 보면 도저히 주체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 희로애락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말고 평상심, 평정심을 가지라는 것이 팔풍부동의 의미이다.

팔풍에 흔들리면 찾아오는 것은 괴로움, 고통뿐이다. 흔들리는 강도가 높으면 고통의 강도도 높고, 강도가 낮으면 고통의 강도도 낮다. 적게 흔들리면 적게 받는다. 기술은 가능한 적게 받도록 훈련을 하는 것이 상책이다. '얼마만치 적게 흔들리고 살아가느냐.'가 기술이다. 그것은 곧 얼마만치 마음의 상처를 적게 받느냐와 직결된다.

팔풍 가운데 칭(稱)은 면전에서 칭찬하는 것을 말하는데, 면전에서 칭찬하면 진심이든 립서비스든 보통은 '감사합니다' 혹은 '과찬입니다'라는 인사 정도는 해야 한다. '소 닭 쳐다' 보듯이 물끄러미 쳐다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푼수나 소인은 목에 힘을 주기도 하고 스스로를 추켜세우기도 한다. 설사 훌륭하다고 해도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인생이다.

내가 아는 어떤 분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예고 없이 나를 찾아왔는데, 들어서자마자 앉지도 않고 나를 칭찬해대기 시작한다. 어찌되었든 칭찬을 하면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아서 융숭하게 대접했는데, 똑같은 말로 칭찬을 하니 그게 세 번째가 되었을 때엔 팔풍부동이 되었다. 그런데 이분이 네 번째 방문부터는 갈 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여지없이 빌려주어야 한다. 돌려받은 적은 없다. 팔풍에 걸린 것이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전륜성왕 상투 속 구슬 주면 안 된다"



격절록 강설

⑪ 3칙 백장불자화 3

[評唱 2]

古時尊宿 纔見僧來 便擧起拂子 問佛法 或問祖意西來意 多擧起拂子 所謂 如獅子教兒. 迷蹤訣 纔方跳擲又翻身了也 須會他宗師家手脚始得 如此奇絕. 看他師資相見. 如印印空 更無瑕玷 如印印泥 誰辨得他字義. 到這裏 道吾舞笏同人會 石鞏張弓作者知 如印印水.

옛날에 존숙(尊宿, 덕 높은 어른)들은 (학인)스님이 오는 것을 보자마자 바로 불자(拂子)를 들어 세웠고, 불법(佛法)을 묻거나 혹은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祖師西來意)을 물을 때에도 많이들 불자를 들어 세우곤 했는데, 이른바 마치 사자(獅子)가 새끼를 가르치는 것과 같았다. 미혹한 자취를 끊어야 바로 뛰어올라 몸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이니, 모름지기 저 종사들의 솜씨가 이와 같이 비할 데 없이 기이했음을 알아야 한다. 저 스승과 제자가 서로 만나는 것을 보라! 마치 도장을 허공에 찍는 것과 같아서(如印印空) 조금의 허물이나 잘못도 없고, 마치 도장을 진흙에 찍는 것과 같은데(如印印泥) 누가 저 글자의 뜻을 가려낼 수 있겠는가? 여기에 이르러서는 도오(道吾)가 홀(笏)을 잡고 춤을 추자 동인(同人, 같은 경지에 있는 사람)이 알았고, 석공(石鞏)이 활시위를 메자 작자(作者, 선지식)가 안 것이 마치 도장을 물에다 찍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涅槃心易曉 差別智難明. 只如 溈山問仰山 "馬祖出八十四員善知識 幾人得大機 幾人得大用" 仰山云 "百丈得大機 黃蘗得大用 自餘皆是唱道之師" 看他馬祖一喝 百丈直得三日耳聾 且道 此一喝意作麼生. 不見適來道 "輪王髻中珠 不可輕分付" 古人那裏肯獨自用來.

열반심(涅槃心)은 쉽게 알 수 있지만, 차별지(差別智)는 밝히기가 어렵다.

위산(溈山)이 앙산(仰山)에게 물었다.

"마조(馬祖)에게서 84명의 선지식이 나왔는데, 몇 사람이나 대기(大機)를 얻었으며, 몇 사람이나 대용(大用)을 얻었느냐?"

앙산이 말했다.

"백장(百丈)이 대기를 얻었고, 황벽(黃蘗)이 대용大用을 얻었습니다. 나머지 모두는 창도사(唱道之師, 교가의 스님) 일뿐입니다."

저 마조가 일 할(一喝)을 하자 백장이 곧바로 3일 동안 귀먹었던 것을 보라! 자, 말해보라! 이 일 할의 뜻은 무엇인가? 좀 전에 말한 것을 보지 못했는가? "전륜성왕의 상투 속 구슬은 가볍게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던 것을! 고인(古人)이 언제 제멋대로 쓰는 것을 긍정했는가?

❋도오는 관남도오(關南道吾)를, 동인(同人)은 도오의 스승 관남도상(關南道常, 염관제안의 법손)을 뜻한다.

❋석공은 석공혜장(石鞏慧藏)을, 작자는 삼평의충(三平義忠)을 뜻한다.

❋석공혜장(생몰 연대 미상): 당나라 때 스님으로 원래 수렵을 업으로 했는데, 어느 날 사슴을 쫓다가 마조도일을 만나서 설법을 듣고는 활을 버리고 출가하여 그의 법을 이었다.

❋삼평의충(三平義忠, 781~872): 석공혜장에게 참구하고, 후에 대전보통의 법을 이었다.

❋위산영우(溈山靈祐, 771~853): 당나라 때 스님. 제자 앙산혜적과 함께 선풍을 크게 거양하여, 그 법계를 위앙종이라 함. 15세에 출가, 백장회해 문하로 들어가 법을 이음.

❋앙산혜적(仰山慧寂, 803~887): 17세에 출가하여 두개의 손가락을 잘라서 서원을 세우고 삭발함. 위산영우에게 참학하여 법을 이음.

❋황벽희운(黃蘗希運, ?~850): 백장회해의 법을 이음. 배휴의 청에 의해 출가지인 황벽산에 가서 황벽이라 이름 짓고 개조가 됨. 제자로는 임제의현이 있다.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⑪ 믿음 편 11

우리 마음 깨끗하면 그것이 정토

얼마 전 어느 지인의 부고 소식을 듣고 스님 한 분과 조문을 간 적이 있다. 그런데 스님은 장례식장으로 바로 가지 않고 고인이 입원한 병실로 들어갔다. 병실에는 휴대폰에서 나오는 '나무아미타불' 독송을 들으면서 고인이 누워있었다. 흔히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가는 데도 얼마 동안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그 시간 동안 고인에게 염불을 들려주고 싶은 유족의 마음을 병원 측에서 이해하고 영안실로 모시는 시간을 늦춘 것이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고인의 얼굴이 무척 편안해보였다.

다소 낯선 경험이었지만, 불자들이라면 이런 방식을 매우 선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유족들의 마음에 커다란 위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분명 고인이 아미타불이 계시는 정토에 왕생할 것이라고 믿을 것이다. 아미타 정토의 실재 여부를 떠나 그 믿음으로 남은 이들의 아픈 상처는 치유된다. 종교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아미타신앙에 의하면 누구든 '아미타불' 명호를 열 번만 불러도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아미타불의 본원력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전형적인 타력신앙이다. 그렇다면 아미타불은 누구이며, 그분이 사는 정토는 어떤 곳이기에 불자들은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것일까?

〈무량수경〉에는 아미타불이 본래 한 나라의 임금이었는데, 세자재왕여래(世自在王如來)의 설법을 듣고 출가하여 법장비구(法藏比丘)가 된 사연을 전하고 있다. 법장비구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이 원(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 서원을 48가지로 구체화한 것이 유명한 48대원이다. 법장비구는 5겁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수행과 보살행을 통해서 이 원을 성취하고, 석가모니 붓다보다 무려 10겁 전에 성불했다고 한다. 그 48가지 서원이 모두 이루어진 정토가 바로 극락세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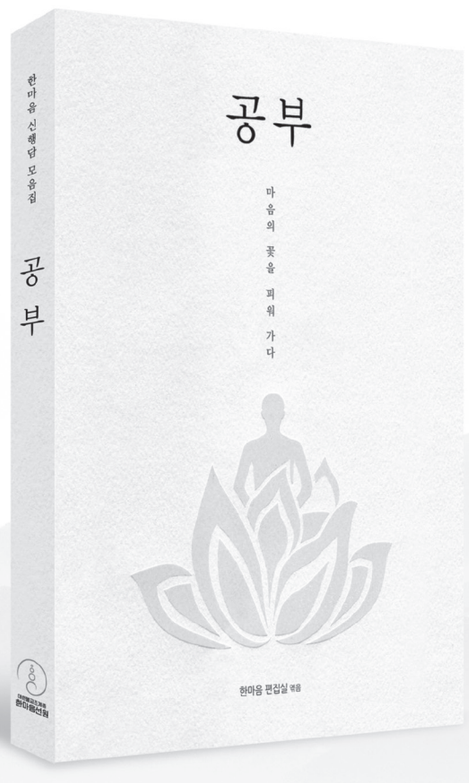
아미타(阿彌陀)는 아미타유스(amitāyus) 또는 아미타바(amitābha)를 소리 나는 대로 옮긴 것이다. 아미타유스는 '무량수불(無量壽佛)', 즉 시간적으로 영원한 부처라는 뜻이며 아미타바는 '무량광불(無量光佛)', 즉 공간적으로 영원한 광명을 비추는 부처라는 뜻이다. 그래서 아미타불을 모신 전각을 무량수전, 혹은 무량광전이라 부른다. 이 아미타불이 사는 극락세계는 서쪽으로 10만억 국토를 지나야 있다고 해서 서방정토, 혹은 서방극락세계라고 한다.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정토는 땅이 금과 은 그리고 옥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러 가지 훌륭한 것들이 한량없이 많으며, 광명이 찬란해서 아름답고 깨끗하기가 비길 데 없다고 한다. 그야말로 나고 죽는 고통이 소멸된 영원한 생명과 광명, 즐거움이 넘치는 극락의 세계다.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이유에 아주 적합한 구조로 되어있다. 이런 멋진 곳에 갈 수 있는 조건은 오직 하나 있다. 바로 아미타불에 대한 믿음, 즉 간절한 마음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아미타불을 염하면, 아미타불이 극락세계로 데리고 간다고 한다. 장례식장에서 석가모니불보다 아미타불 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도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서방정토 신앙의 핵심은 모든 것을 내가 아니라 아미타불께 맡기는 데 있다. 기쁜 일, 슬픈 일 모두 아미타불께 맡기고 오직 간절한 마음으로 정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와 달리 아미타불과 서방정토가 저 멀리 서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에 있다는 해석도 있다. 유심정토(唯心淨土), 자성미타(自性彌陀)가 바로 이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면 그대로 정토요, 아미타불은 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자성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자성이 곧 아미타불이라면 '나무아미타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과 광명의 자리에 돌아가겠다는 자기고백이다. 이는 곧 자력신앙과 다름이 없다. 하나의 신앙이 자력과 타력 둘을 모두 포용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서 신행의 지침으로 삼는 일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판매처
●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 운주사 02-3672-7181
●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 온라인 주문 현불샵 http://www.hyunbulshop.com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